

6명의 화가, 7명의 예비 비평가를 만나다

산수미술관 6월 16일까지 '위로의 메타포-그림은 위로다' 전

작가·비평가 일대일 매칭 전시
조선대 미술이론 전공 학생들
전현숙 등 작가 6명 선정
16개 작품 비평과 함께 선 보여



성혜림 작 '홀로서기'

대학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예비 비평가들이 '동시대 작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뜻밖의 시선의 예비 평론가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에 대한 비평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전이 진행중이다.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색다른 시각의 분석에 따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작가와 비평가 일대일 매칭 전시 '위로의 메타포-그림은 위로다'가 오는 6월16일까지 산수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 미술 담론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1월에 개관한 산수미술관(관장 장민환)이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평가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다. 프로그램은 비평가 교육, 비평 해당 작품 분석, 해당 작품과 동일 범주 작품들 분석, 글쓰기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획에는 대학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있는 조선대 시각문화큐레이터 전공 4학년 김경나, 김중석, 김푸름, 임소연, 조이현, 이하영, 노준석씨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앞으로는 전남대, 광주대 등 다른 대학 희망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선정한 작가는 전현숙, 박성



한동훈 작 '님을 위한 노래'

완, 송지운, 성혜림, 김단비, 한동훈 등 6명으로 모두 16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들은 자아, 가족, 도시, 유토피아 등 자신의 작품 주제와 관련 있는 소재(슈퍼맨, 피노키오, 어린이, 산수화 등)를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작가들이다. 전현숙 작가는 자신의 남편을 슈퍼맨으로 분장시켜 현대인의 애환을 이야기 하고 있고, 한동훈 작가는 현대인의 자아의 문제를 피노키오 모티브로, 성혜림 작가는 어린이 모티브로 풀어 작품화시킨다. 김단비 작가는 붉은 색의 산수화 형식으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박성완 작가와 송지운 작가는 도시의 다채로운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비평가들은 은유가 주는 힘에 주목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비평문을 함께 전시했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개막행사 'Artists & Critics'에서는 전시 작품에 대한 작가 설명, 비평, 토론 등이 펼쳐졌다. 문의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러빙 빈센트' 상영

31일 '시네마 가이드 맵'...한희원 화백 토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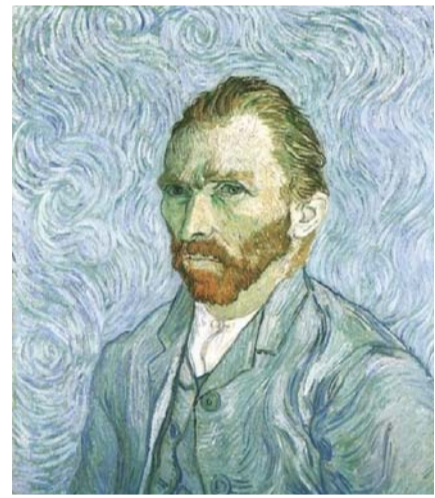
광주극장은 '시네마 가이드 맵' 5월 상영작으로 31일 오후 7시 '러빙 빈센트'를 준비했다.

'시네마 가이드 맵'은 광주극장에서는 매월 1회씩 문화, 예술 및 다양한 각기의 전공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초빙해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러빙 빈센트'는 시 쓰는 화가, 양림동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희원 화백이 추천했으며 이날 영화 상영 후 한 화백과의 토크가 이어진다.

영화는 '러빙 빈센트'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모티브로, 전 세계 화가들이 10년에 걸쳐 그의 마스터피스 130여 점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재현한 영화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반 고흐의 지인이었던 우체부 롤랑(크리스 오다우드 분)은 아들 아르망(더글러스 부스 분)에게 반 고흐의 마지막 편지를 그의 동생 테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또 빈센트를 그리워하는 여인 마르그리트, 빈센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아들인, 빈센트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닥터 폴 가세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월요 콘서트 '해설이 있는 재즈 여행'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박영렬 재즈 콰르텟' 초청

한주가 시작되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월요 콘서트. 이번주는 해설이 있는 재즈 History 여행이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는 28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5층 소공연장)에서 박영렬 재즈 콰르텟 초청 '해설이 있는 재즈여행' 공연이다.

색소폰 연주자 베니 카터의 대표곡 'Doozy',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의 삽입곡 'Wouldn't it be lovely', 피아니스트 베니 그린의 연주곡 'nice pants' 등을 선곡해, 뮤지션이 느끼는 현장의 감성을 충실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박영렬(베이스), 이복근(드럼), 황진수(피아노), 김은영(보컬) 등이 출연한다.

박영렬 재즈 콰르텟은 2008년도에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 스탠다드 재즈에서부터 그루브 넘치는 잼 밴드, 스타일리쉬한 라운드 뮤직과 애시드 재즈, 뮤지컬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채의 재즈를



악을 연주하고 있다.

'월요콘서트'는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며 공연 후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공연은 오는 6월 4일 푸미양상들의 '디즈니 워드 콘서트' 공연을 선보인다. 전석 초대. 문의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

일제 강점기 광주 도시개발 어떻게 이뤄졌나

오늘 '광주학 콜로키움'...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

윤현석 박사 주제발표

'광주근대 도시사실'을 주제로 한 광주학 콜로키움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8일 오후 5시 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2차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윤현석(광주일보 정치부 부장) 박사의 '광주 근대의 시작과 도시 시설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도시개발 방식과 근대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자리에서 윤박사는 일제강점기 추진한 광주 도시 개발이 기존 조선인 중심의 공물체를 파괴·훼손했으며 이러한 일

제의 도시개발 방식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개발'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천득염(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이영진(전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동순(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등 지역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광주학 콜로키움은 매월 4번째(6월, 7월, 10월, 11월) 월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제3차 광주학 콜로키움은 6월 25일 조광철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의 '광주천이 품은 역사'란 주제로 열린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선 7기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 워크숍

광주여성재단 내일... 일자리 등 6대 분야 정책 제안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민선 7기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제3차 성평등 정책 현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현안워크숍은 민선 7기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 여성대표성, 일·생활균형, 돌봄·가족, 인권·안전, 성주류화 등 6대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간행어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김경례 전남대 학술교수의 기조발표 및 일자리분야,

일·생활분야 이춘희(광주북부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대표성 분야 서미정(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돌봄·가족 분야 김경란(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인권·안전 분야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성주류화 분야 노재영(광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의 발표가 있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식과 정보교류를 위한 성평등 정책 현안워크숍을 매달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670-053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문활동 상상포럼 남부권 행사

30일 양림동 오웬기념각...인문학 활용 방안 논의

2018 인문활동 상상포럼 남부권 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1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웬기념각과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새로운 인문활동에 대한 상상과 인문 분야 창작 등을 주제로 문화기획자, 사회혁신가 및 사회적 기업의 인문학 자원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안영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김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씨

등이 '인문, 여행으로 지역을 혁신하다', '인문, 비즈니스와 모자이크하라'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박시훈(광양문화도시사업단), 김소은(THE 관광연구소)씨 등이 토론에 나서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인문활동 정책 사업 안내와 네트워크 시간도 마련된다.

일반인도 참석가능하며 포럼 참가 사전 신청자에게는 오후 5시30분부터 양림동에서 열리는 '1930 양림살롱'에 참여할 수 있는 텀블러와 음료 쿠폰 1장을 제공한다. 문의 063-219-27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